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 계획 수립

협회는 과학기술부가 2002년부터 2006년까지의 제2차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RI이용증진을 위한 제도기반 개선분야』에 참여하여 관련분야 진흥계획안을 제출하였다.

이번 제출된 진흥계획안에는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을 위한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 촉진법(가칭)」제정, ▲비발전분야의 중추적 기능을 위한 RI관련 전문단체 육성, ▲발전분야와 비발전분야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자원의 합리적 배분 및 추진 가속화 등이 포함되어있으며, 이를 위하여 ▲산업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RI관련 전문인력 개발을 위한 기반 조성, ▲RI이용 활성화를 위한 원자력법 관계 민원업무 개선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토록 제시한다.

정부의 제2차 동 진흥계획은 8월 30일까지 각 분과별 진흥계획 초안이 수립되며, 11월 중 최종적인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12월15일 진흥계획 최종보고서가 완성될 계획이다.

과학기술부는 21세기초 원자력기술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핵심기술 확보 및 원자력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1995년 개정된 원자력법에 따라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선량한도 초과자 염색체 변이검사 지원

협회는 2001년도 2/4분기 중에 S산업체와 Y병원에서 각1명씩 선량한도 초과 측정자가 발생하여 과피폭의 영향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원자력병원에서 염색체 변이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S산업체의 J씨의 경우에는 염색체변이 검사결과가 정상으로 판명되었으며, Y병원의 K씨의 경우에도 조만간 검진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검진결과는 방사선장해방어 조치 등의 업무에 활용할 계획이다. 협회는 원자력병원과 협회에 등록된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선량한도 초과 측정자에 대한 염색체 변이검사 계약을 체결하여 방사선작업종사자의 보건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